

새 역할놀이

개발자	신미향(태안해안국립공원)
<p>숲에 사는 새들이 생존하려면 자기보호를 잘 하여야만 한다. 이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공격 등을 대처하는 새들의 일상을 역할놀이를 통해서 새가 되어보고 새가 된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본다.</p>	
활용대상	유아 ~ 초등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새 사진
소요시간	20분
제작비용	없음





운영사진1) 등지모양 만들기



운영사진2) 새 역할 분담하기

운영방법

1. 두 사람은 등지 모양을 한다.
2.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은 새 역할을 맡는다.
3. 진행자가 “맹금류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치면 새들은 재빨리 등지 안으로 숨는다.
4. 새가 등지 안으로 들어가면 등지 역할은 팔을 감싼다.
5. 등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새는 맹금류에게 잡힌다.
6. 맹금류에게 잡힌 새는 진행자가 벌칙을 주기도 한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

향후방향

새 깃털과 사진자료를 함께 활용해 비교해보고 맹금류와 산새의 먹이활동, 행동들의 차이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내용

- ※ 맹금류 설명
- 먹이 : 육식성 (설치류, 작은 새)
 - 날개로 구별 : 매과, 수리과
 - 텃새 : 황조롱이, 참매, 올빼미, 수리부엉이 등
 - 철새 : 말뚝가리, 흰꼬리수리 등
 - 주로 보이는 새들로 집중 설명

주의사항

- 숲에서 새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 새소리를 들려주므로 조용히 시킨다.
- 움직일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주의 시킨다.
- 역할놀이를 할 때 너무 등지 근처에만 맴돌지 않으며, 역할 자는 새들의 행동들을 따라한다(예: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내듯 머리를 앞뒤로 흔들 듯이.)